

한국지방신문협회 총선 전국 판세 분석

수도권 野 유리 강원 6곳 박빙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지난 6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에서 민주통합당 광주지역 후보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미당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와 경인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대전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전국의 9개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1 총선을 사흘 앞둔 8일 전국 지역별 판세를 긴급 점검했다. 그 결과, 영호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여야 후보 간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지역별 판세를 요약한다.

인천지역 여야 '백중세'

경기·인천 역대 선거에서 경기·인천은 전국의 선거 결과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처럼 여겨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제각각 다른 지역정서를 갖고 있는데다, 이렇다할 지역색도, 지역 관세를 좌우할 '거물'도 없는 곳이 바로 경인지역이다. 단일 권역으로 전국 최대인 52개 의석을 놓고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는 일단 단일화에 성공한 아권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는데 전반적 평가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수원병과 성남 분당 갑·을, 용인 병,김포, 인천 등 15곳 정도를, 민주통합당(아권단일후보 포함)은 수원갑·정, 오산, 시흥을 등 20곳 안팎을 각각 우세지역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주장하는 우세지역이 일부 겹치는데다, 각각 판세 분석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무려 20여곳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합지역이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12개 의석 중 새누리당이 중동운진 등 6곳을, 민주당·통합진보당은 부평갑 등 5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측 모두 압승을 장담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경인지역은 민심이 가장 유동적인 곳답게, 표심이 인간인 불법사찰 논란으로 아권으로 기우는 듯하더니 이내 민주통합당 김음 민주후보의 막판 파문으로 다시 요동치고 있다. /경인일보=총선특별취재반

민주 몇석이나 최대 관심

부산 부산일보를 비롯해 각 언론사가 지난 4일까지 조사해 최근 공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권의 대선주자인 문재인(사상) 후보는 새누리당의 '젊은 아이 콘' 손수조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다. 손 후보는 공천 확정 무렵 일부 여론조사에서 8%포인트까지 격차를 좁이면서 문 후보를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후 불거진 '3000만원 선거 운동' 시비, 선거법 위반 논란 등으로 참신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영남의 유일한 민주당 재선 의원인 조경태(사하울)은 부산시 부시장 출신의 새누리당 안준태 후보를 여 유있게 따돌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문성근 후보가 출마한 북강서를 지역구에서는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몇차례나 뒤바뀌는 등 혼전 양상이다. 문 후보의 대중적 인지도와 새누리당 김도을 후보의 지역 밀착도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서울에서 지역구를 옮긴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출마한 부산진갑 지역구도 관심이다. 새누리당 나성민 후보와 여당 공천탈락자인 무 소속 정근 후보가 여론 성향의 표를 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누구의 우세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일보=박석호 기자

창원 의창구 등 6곳 혼전

경남 경남신문 여론조사를 비롯, 각종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경남지역 16개 선거구 중 창원 의창구와 창원 성산구, 진주갑, 거제, 김해갑·을 등 6곳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창원 의창구와 의창구 출신인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와 민주노동당 대표 출신인 통합진보당 문성현 후보가 양자대결을 펼치는 곳으로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성산구는 여권후보와 진보 2명의 후보가 3자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강기운 후보와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간의 양강 대결 양상이다. 진주갑은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통합당 후보, 3명의 무소속 후보가 맞붙어 우열을 가늠하기 힘들다. 거제 선거구는 3자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모두 오차범위 내의 접전으로 나왔다. 김해갑은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와 민주통합당 민홍철 후보, 무소속 김문희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지만 여야 두 후보간 양강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김해을은 김태호 후보가 10번 중 7번 정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 오차범위 내였다. /경남신문=김명철 정치부장

전주 완산읍·남원순창 주목

전북 전북은 민주통합당의 전통적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 총선과는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북지역 11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무소속이 골고루 당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이 당선자를 낸 적은 전무하다. 새누리당도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군산에서 당선자(강원호 전 전북지사)를 낸 이후 16년 동안 당선자가 없었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는 전주 완산읍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남원·순창에서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상임감사)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읍에서는 호남 유일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유성영 후보의 무소속 재선이 확실해 보인다. 익산읍과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역대 총선에서 사실상 싸움을 해 온 민주당이 전북지역 11개 선거구 가운데 2곳 이상의 의석을 잃고, 특히 전북의 심장부인 전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독식해온 전북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전북일보=총선특별취재반

전통 강세 선진당 기반 흔들

충청 충청권의 표심은 늘 복잡하다. 영호남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로 인해 탄생한 지역정당이 실제로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보면 영호남과는 달리 어느 특정 정당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25개 선거구에서 1-2석을 얻는데 그쳤고, 민주당과 선진당이 양분하는 구도였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전통적 구도가 와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에 대한 미래 권력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선진당이 내부 균열 등으로 동력을 잃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고 있는 8일 현재 충청권 판세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강구도에 자유선진당이 맹추격을 하는 양상이다. 각 정당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볼 때, 충청권 25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선진당이 각각 7-8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로 우세를 주장하는 선거구가 겹치고 있고, 박빙 승부처가 많아 섀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은 6개 선거구 가운데 동구, 중구, 서구를 등 3곳이 접전지역으로 꼽힌다. 충남은 10개 선거구 중 천안갑, 천안을, 공주, 아산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대전일보=정재필 기자

새누리 '싸늘이' 예고

대구·경북 새누리당의 텃밭인만큼 싸늘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지역이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대구는 11 대 0, 경북은 16대 0으로 한나라당에게 전 의석을 내주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전국이 탄핵 열풍에 휩싸였지만 대구는 12 대 0으로 한나라당의 손을 또 들어주었다. 경북에서는 한나라당이 단 한 석만 무소속에 내주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았다. 18대 총선에서 대구경북 전 지역에 걸쳐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아권이 전 선거구에 걸쳐 후보를 낼 정도로 의욕이 차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처럼 전국적인 인물도 있었고 자치단체장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대구시장,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도 포함되는 등 화려한 진용을 갖추었다. 그러나 선거전 판세로 볼 때 아권의 기대는 '혹시나'에서 '역시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해졌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새누리당 후보를 근접에서 따라가는 곳도 몇 군데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이동관 정치부장

새누리 3곳·민주 2곳 '우세'

강원 강원도 선거 역대 최대의 혼전 양상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내 9개 선거구 중 6곳이 오차범위내 접전으로 나타나는 등 여야가 얽히락 뒤치락하고 있다. 강원일보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지난 4일 발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 원주갑·을, 홍천·횡성, 속초·고성·양양, 태백·영월·평창·정선 등 6곳이 최소 1.9% 포인트, 최대 7.1% 포인트차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3곳에서 우세, 4곳에서 경합우세를 나타내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2곳에서 경합우세를 지키고 있다. 여당은 전통적인 지 지중 결집 현상이 뚜렷하고 야당은 정체현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야 정당지지도에서도 추이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 새누리당 지지도는 2차 여론조사 결과 37.9%로 나타나 1차 여론조사 때의 35.1%보다 2.8% 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도는 1차 여론조사 27.8%보다 0.8% 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강원일보=민원기기자

민주 후보 2곳서 초강세

제주 민주당 소속 3명의 현역의원들의 지지도가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전승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제주시 갑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계 제로의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5선 관록의 새누리당 현경태 후보와 재선 현역 의원인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이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김우남 후보의 독주체제가 뚜렷하고 야당은 정체현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우남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차 35.2%, 2차 46.5%, 3차 45.9%, 4차 56.7% 등으로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역시 3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재우 후보가 1-4차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 문대희 후보와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추격전도 만만치 않다. /제주일보=고경호 기자

직원모집

저희 엘리시아는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에 위치한 씨푸드뷔페 레스토랑으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의 리모델링 공시기간을 통해 동종업계 최고의 인테리어와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여 5월1일 재 오픈을 함에 있어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초빙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대우 또한 동종업계 최고가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모집부서	모집인원	대우	비고	
카운터(캐서)	사원,주임	여 0명	연봉 1,900~3,000만원	용모단정한자
안내(인포)	사원	여 0명	연봉 1,700~3,000만원	용모단정한자
조리부	일식	남,여 0명	연봉 1,700~3,000만원	초보자 가능하며 경력자 우대
	양식	남,여 0명		
	중식	남,여 0명		
	한식	남,여 0명		
제과사	남,여 0명			
주방보조	사원	여 0명		
영업부(홀씨빙)	사원	남,여 0명		
아르바이트(홀씨빙,조리보)	준사원	남,여 00명	시급 4,600~6,000만원	

복지 - 4대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상여금, 우수사원포상(특별휴가 및 포상금지급)

휴무 - 월 6일 휴무보장(적극 5일근무)
- 하계휴가, 명절휴가(추석, 설날) 각각 2박 3일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1부
- 자기소개서 1부

서류접수처 - 엘리시아 상무점 임시 예약상담실
-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세정아울렛 3층
- E-mail 접수가능: bng640@hanmail.net

서류접수기간 - 2012년 4월 14일까지

면접일자 -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이력서 현장 접수시 즉시면접 가능

연락처 - ☎ 062)385-3000 FAX 062)385-3306

홈페이지 - http://www.elysia.co.kr/
- 엘리시아 다들카페: http://cafe.daum.net/elysiaaa

엘리시아 상무본점

무등빌딩임대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공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독일보청기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미만(천만원당 月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금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리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순순위 대출금세 90%에서 순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 순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